

등성마루 쪽부쟁이 때 이른 가을인사



<41> 설악산 ㉑



○울산바위에서 바라본 백두대간. 화면 오른쪽의 봉우리가 황청봉이다.

말이가네 살인가다섯 살쯤 되었을 때, 함께 밤길을 건다가내게 물었다.
 "아빠,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을 걸."
 "왜요?"
 "별들은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네.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있거든."
 백두대간의 산들도 그랬다. 높은 산 낮은 산이 어깨를 걸고, 이 땅의 모든 산들을 보듬어 안고 있었다. 높은 산은 저술로 우뚝하지 않았고, 낮은 산이라 하여 주눅들어 하지도 않았다. 골짜기마다 물을 흘러 강물을 살피우고 있었고, 그 강물은 돌을 적시며 사람을 거두고 있었다.
 이제 지리산에서부터 백두산을 향해 오르는 남녘 백두대간의 마지막 고개인 진부령을 향한다. 몸을 낮춘 낮은 산이 높은 산을 오르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더라면, 산등성이가 허리를 낮춰 고개를 열어주지 않았다더라면 불가능했을 길이다.
 높고 낮음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등산과 하산 또한 맞선말이 아님을, 설악에서 진부령으로 내려서는 내 리막길에서 다시금 깨닫는다.

이 번 산행의 기점은 마등령(1230m). 외설악의 비선대나 천불동 계곡에서 내설악의 백담계곡을 넘나드는 길목인 지라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그래서인지 이곳에서는 다람쥐가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 부스러기에 길들여진 탓이라.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간섭이 드러우는 어두운 그림자의 한 부분이다.
 설악산의 때묻지 않은 옛 모습은 어땠을까. 마등령에서 서남쪽내설악으로 한 시간 남짓한 거리에 있는 오세암의 옛 풍경에 잠겨서 본다.

비와도 그럭없는 파초와 같다면
 난들 티끌 속 달려가기 꺼릴 것이 있겠는가.

설악산의 옛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머리 속에 펼쳐놓는 만해 한윤준(1879-1944) 스님의 시다. 본디는 한시(漢詩)인데 지면 관계상 원문을 생략했다. 옮긴 우리말은 이원섭 시인의 것을 그대로 썼다.
 동학혁명의 좌절을 경험한 뒤 오세암으로 들어가

오세암(五世庵)

구름과 물 있으니 이웃만 하고
 브리(臂提)도 있었거나 하물며 인(仁)일 것가.
 저자 말매 송차(松茶)로 약을 대신하고
 산이 깊어 고기와 새 어찌다가 사람을 구경해...
 아무 일도 없음이 참다운 고요 아니요
 첫 뜻을 어기지 않는 것 진정한 새로움이거니.

여 스님이 된 다음에도 대쪽같은 기개로 일제에 맞선 만해 스님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긴 시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청정한 마음의 본바탕을 잃지 않는다면 그곳이 곧 정토임을 일깨우는 시로 읽어도 크게

오세암엔 설잠 김시습 혼 서러 향로봉 보며 금강산 그려본다

허물될 일은 아닐 상시다

다섯 살 난 아이가 관세음보살의 보살림으로 부처를 이루었다는 전설을 간직한 오세암에는 또 한 명의 고결한 인간의 혼이 서려 있다. 바로 설잠 김시습(1435-1493)이다. 오세산등으로 불린 그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속세를 등지고 이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마등령에서 진부령까지는 도상 거리 23km로 여유로운 산행을 위해서는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뒷군고도 까다로운 너덜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거리로만 소요 시간을 예상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마등령에서 허리를 곧추 세우는 대간은 너덜(1326.7봉 아래)을 지나면서부터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저항령(1100m)을 향한다. 특히 저항령으로 내려서는 너덜은 반 시간 이상 시간을 잡아먹는다.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으로 조각이 난 회강암 덩어리로 이루어진 너덜은 '세월의 모래시계'다. 이런 거대한 시간의 흐름에 비추보면 인간의 삶이란 그야말로 하루살이의 삶에 불과하다.

황청봉(11381m)을 지나면서 또 너덜이다. 산기슭을 흘러내리는 거대한 바위물결. 이왕이면 즐기는



○한국 특산식물인 금강초롱

자세로 바위의 파고에 몸을 실어본다. 이곳을 지나면 미시령(彌矢嶺, 767m)이 지척이다. 가쁜 숨을 토해내는 자동차 소리가 반갑게 들린다. 심각한 수준의 문명 중독증이 아닐 수 없다.

미시령(767m), 강원도 인제군 북면과 고성군 토성면을 이어주는 고갯마루로, 옛부터 백두대간의 동서를 넘나드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이곳에서 잠시 숨을 고른 백두대간은 상봉(1239m)과 신선봉(11381m)을 일으켜 세운다.

미시령을 지난 백두대간의 등성마루는 지금, 늦은 여름과 이른 가을이 자리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꽃머리바람과 같은 여름 들꽃이 지천인데, 드문드문

쪽부쟁이와 구절초가 수줍은 웃음을 피워올리고 있다.

미시령에서 10여 분쯤 지나면 통신 중계탑이 나온다. 이곳에서는 잠시 몸을 돌려 세우야 한다. 남쪽으로로는 황청봉이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하고, 동으로는 울산바위가 빼어난 눈맛을 선사한다.

다시 북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상봉 아래 샘터. 물 붓선과 동자꽃에 눈인사 건넨 다음, 물 한 모금 마시고 나면 상봉이 살짝게 다가선다. 상봉 암릉지대를 비껴물어 화암재로 살짝 내려앉았다 키를 올리면 신선봉. 두어 시간 더 진행하면 대간령(쌍령, 630m). 이곳에서부터 마산(1051.9m)을 향하는 백두대간은 서북에서 남, 다시 북으로 심하게 휘어든다.

마산 정상에서 서서 남녘 백두대간 종주의 마지막을 실감한다. 흘러 폭 일프스 스키장이 눈 아래로 펼쳐지고, 진부령(629m) 너머 향로봉이 시선을 허공으로 띄워올린다. 금강산이 지척이건만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분단의 비극은 한달음에 밀릴 물리적 거리를 아득히 벌려 놓고 있다.

알프스 스키장에서 진부령으로 향하는 포장 길을 버리고 회미한 대간 능선을 더듬어 진부령에 선다. 향로봉 위에 걸린, 향로 연기를 대신한 구름에, 반쪽짜리 백두대간 종주를 마치는 척척한 심사를 가락한다.

(사실상의 남녘 백두대간 종주는 끝났지만, 다음 회에 향로봉에 오르는 것으로 연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손재석(사진작가)



○미시령에서 상봉을 오르는 초입. 늦은 여름 들꽃과 이른 가을 들꽃이 한창이다.

스님 종교 신도 좋은 신용카드 - 불자는 부다피아 카드로 산다!

현대불교와 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자신용카드 "부다피아 하나카드" 발급 기사

하나은행 비자카드 특전 + 선물보시! 부다피아 하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원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된 카드발급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은영이나 기타카드대리점 제외)
 - 현대불교신원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 받은 부다피아 카드로 6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 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꽃마을, 소쩍새마을,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제공됩니다.
 - 군법당, 교도소, 병원 등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필요한 곳에 법보시용으로 쓰입니다.
 - 결식아동돕기 등 아동 재활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원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는 보시행의 참 뜻을 받들어 기금운영 상황을 현대불교신원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 실속1** 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
- 실속2** 주유할인서비스
- 실속3** 무료보험서비스
 - 휴일 상해보험 · 해외여행자보험
 - 항공상해보험 · 뱃소안심보험
- 실속4** 롯데월드 무료입장서비스
- 실속5** 스피드카드론

카드사업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집합니다. (이력서 제출)